

민선 6기 광주시·전남도의회 첫 시·도정 질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책 뭘가”

김동찬 시의원 시정질의

특수학교 LED조명 교체
특정업체 수의계약 의혹



김동찬 시의원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33회 제4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김동찬(새정치·북구 5)의원이 나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시교육청의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특수학교 LED감성조명 교체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심각, 대책 마련 시급=김 의원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위험군과 주의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의 예방대책 수립을 주문

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여섯가족부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생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결과 2011년 3.8%에 불과했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비율이 2014년 8.0%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치료와 상담도 2011년 207명에서 2014년 1310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일선 학교와 시교육청이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적절한 예방과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학급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프로그램에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수학교 LED 감성조명 사업 특혜 의혹=김 의원은 또 “최근 15억원대 규모의 특수학교(학급) LED 감성조명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검증도 되지 않은 특정업체 제품을 비싸게 구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시교육청이 관내 특수학교 2곳을 비롯해 178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조명기구를 감성조명 기구로 교체한 사업이다.

그는 또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시범운영조차 하지 않고 200군데 가까운 학교에 일괄 시공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시교육청은 계약 등에서 청렴성을 강조하는 만큼 특별조사나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한 것은 학교의 경우 시설공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며 “특별조사나 감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만성적자 해결책 있나”

민병홍·강성휘 도의원 지적

이낙연지사 “남북관계 개선
전남도가 주도하고 싶다”



민병홍 도의원



강성휘 도의원



오미화 도의원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는 전남개발공사 운영과 일자리창출사업 지속 운영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전남개발공사 만성적자 지적=민병홍(새정치·화순2) 의원은 이날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분야별 12개 사업에서 만성적자를 내고 있고 인수위도 누적적자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 매각 또는 위탁토록 권고했는데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전남도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출자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솔라시도 사업지구 중 삼포지구의 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 새로운 투자자가 없어

난항을 빚고 있다”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남개발공사의 적자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 변경 등 재조정할 것”이라며 “남아골프연습장은 지난 1일 매각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용역결과를 검토해 매각이나 위탁, 민간이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계획 짜집기 수준”=강성휘(새정치·목포1)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일자리창출사업 105건 중 98%인 101건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 짜집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취업자 목표인원은 4만9000명인데 부문별 취업자 목표인원은 12만명이 넘고, 일자리 창출 인원은 30만 명으로 설정해 놓았다”며 “목표인원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개선 전남도에서 주도”=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남도 차원에서 주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통합진보당 오미화 도의원이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안을 묻자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대북관계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음 대선 가까이 가면 개헌논의 불가”

상하이發 ‘김무성 개헌론’

박대통령 부정적 입장 발언에
‘불가피론’ 제기 ... 갈등 예상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16일 개헌 발언으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붓물이 터질 것”이라면서 “붓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불라콜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힌 후 김 대표가 개헌에 대해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달리 개헌논의의 불가피성을 거론해 당정 갈등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며 친박주류의 ‘시기상조론’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또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개편의 방향으로 직선 대통령외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방중 대표단이 16일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뿔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각제가 부패정치로 가는 길이라는 고정관념이 기우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개헌논의는 정국회 후 자연스럽게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여당 내 반발도 있어 쉽지 않은 양아 보인다.

원내서량탐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달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꺼내들자 “권력구조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 아니지만 지금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가 직접 임명한 당 보수혁신위 김문수 위원장은 개헌에는 부정적이고, 보수혁신위의 논의 과정에도 개헌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소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개발 시급

광주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 토론회

광주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대표의원 김보현)’는 1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청소년 친화 도시를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교 광주대 교수는 ‘청소년 복지와 친화도시 만들기’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기존의 청소년 사업이 요보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영매 광주시 청소년수련원장은 “청소년시설 중 활동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님에도 운영비 보조가 거의 없어 시설을 유지하는데 급급해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희 광주시 청소년센터 소장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청소년은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처럼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범형 조항으로 인해 많은 소외를 받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기관 중 사들도 근로조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동구의회, 해외연수 반납·의정비 동결

광주 동구의회가 해외 연수를 반납하고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동구의회는 전체의원 긴급 간담회를 갖고 동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해외연수 반납과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의 일본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않고 연수비는 전액 반납할

예정이다.

또 지난 14일 동구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월정수당)를 공무원보수 인상을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동구청의 현 상황과 재정여건,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2015년도 의정비는 인상 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시원 안 두 경 전무 하 현 훈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경품 사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한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 본점 671-5000 양림 지점 652-9203 월산 지점 364-7557
KBC광주방송국 및 기독교병원 아래 대성초교 서거리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대용량 에어컨 68% 절감
전기 54% 절감
도시가스 42% 절감

고정비용을 줄여라!!

시설 원에 병원 모텔 펜션
어린이집 목욕탕 요양원 등

지역 특판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 히트 펌프 보일러 남부 방 전문점 대표번호 1644-8983